

■ 93년을 뛰는 30대 프로여성 - 여성전문 출판사 차린 온현정 씨

“구멍가게라도 내 사업을...” 결심 속 실무 파악

〈여성사〉 대표 온현정(33) 씨의 93년은 10년간의 ‘출판계 수습’을 총결산하고 경영자로서의 출사표를 던지는 것과 함께 시작됐다.

“여성학의 대중적 확산, 페미니즘의 생활화를 위한 전문 출판으로 밀어부쳐 볼 생각입니다.”

온현정 씨는 83년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직후부터 〈이상과 현실〉, 〈한길사〉, 〈도서출판 한울〉 등 사회과학 출판사에서 ‘잔뼈’가 굵은 ‘출판통’이다.

고생스런 직장으로 알려진 사회과학 출판사 편집부장이란 명함을 10년 동안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구멍가게라도 내 사업을 해보겠다”는 창업의 꿈 때문이다.

“언젠가 내가 경영할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항상

회사 전체를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편집이 담당이었지만 책을 보급시키는 법, 사람들

관리하는 법, 자금 끌어오는 방법 등 출판경영에 필요한 모든 일을 눈여겨 봐뒀어요.”



사람의 일이란 생각한 대로 되는 법인지 온현정 씨는 93년 1월 한울사로부터 독립한 〈여성사〉 대표가 되는 데에 성공했다. 1월 중 〈돌려보는 일기장〉, 〈아이는 그림으로 말한다〉, 〈이제 좋은 아버지가 되자〉는 육아책으로 독자를 만나게 되는 〈여성사〉의 책들은 새로움, 유용함, 즐거움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출판은 단순히 주장을 펴거나 돈만을 벌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출판사가 지속되는 데에 모두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전문 여성출판을 표방한 이상, 출판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탄탄한 출판사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활발하고 낙천적인 성격이 큰 재산”이라고 말하는 온현정 씨는 ‘자발적인 시집살이’로 일하는 엄마의 환경을 느긋하게 만드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그 안에서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과 함께 살며 대가족 공동체의 장점을 새로이 실감하고 있다고.

민주당 정책전문위원인 김기남 씨와의 사이에 남매를 두었다.

이런 책 한권 - 윤명혜 씨의 자전적 소설 〈여자가 여자에게〉

‘당신 자신의 꿈을 꾸라’ 메시지 담겨

싸움 걸듯 세상 헤쳐나가는 ‘별난여자’ 이야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거나 또는 여자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특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갓난아기는 이 세상의 빛을 보는 그 첫 순간부터 남자 또는 여자로서의 대접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소설가 윤명혜 씨의 자전적 소설 〈여자가 여자에게〉는 이처럼 인간이 되기 이전에 여자부터 되라고 성화를 부리는 이러저러한 환경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거센 도리질을 하며 싸움을 걸듯 세상을 헤쳐나가는 한 ‘별난 여자’의 이야기다.

주인공 명혜는 1948년에 태어난 6.25 세대다. 똑똑하고 자존심 강하며 통이 크던 그의 어머니는 명혜가 여섯살 나던 해 어느 날, 낯짝 아이를 낳다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그 몇달 후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집안에 맞아들이면서 명혜의 인생에는 적지 않은 파란이 일게 된다.

죽은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줬다고 우기는 계모, 결국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약하디 약한 아버지.

계모와 명혜, 계모 소생의 아이들과 명혜 형제들 간의 불화가 극에 달하자 아버지는 여고 2학년생인 명혜에게 동생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살아줄 것을 요구한다. 명혜는 그렇게 하고 이것은 그로 하여금 자유인으로서의 삶에 첫발을 내디디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명혜는 그후 국립 사대를 다니면서 동생들을 부양하고, 휴학에, 소설쓰기에, 다른 여자



애들이 택하지 않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며 여자도 남자도 아닌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게

된다.

이 소설에는 그닥 사건다운 사건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저 명혜라는 한 인물의 눈을 통해

평범한 세상 남녀들의 발가벗겨진 솔직한 모습과 인생의 희노애락을 특유의 재치있고 물흐르듯 자연스러운 필치로 잔잔하게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 자연스러움이 얼마나 천연덕스러운지, 독자들은 분명 이 소설은 작가 윤명혜 씨의 경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은연중 품게 된다.

윤명혜 씨는 이에 대해 “이 글은 엄연히 소설”이라고 못을 박으면서도 그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들이 책의 구석구석마다 제법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어쩌면 이 책이 한국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데미안’같이 생각되는 까닭은 이처럼 경험에 의해 형성된 치밀한 심리적 묘사가 주는 사실감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여자’인 작가 윤 씨가 또다른

‘여자’인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단 두가지다. 그 하나는 남성과 여성은 다르지 않다는 것. 여성이라고 해서 못할 일이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남성이란 하고 해서 죽어도 해치워야 할 무엇이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다른 하나의 메시지는 윤 씨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보도록 하자.

‘바람이 당신더러 풀이 되라 한들. 당신이 풀이 되어 누울 수는 없다. 부모가 원하는 딸이 되지 말아라, 남자가 원하는 여자가 되지 말아라, 아이들이 원하는 엄마가 되지 말아라. 사람의 바람이란 결국 바라는 사람의 꿈일 뿐. 그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당신은 당신의 꿈을 꾸기 바란다.’

〈이내리 기자〉